

“청년일자리,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 ‘청년기회국가’ 를 위한 청년일자리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 ‘청년기회국가’ 를 위한 청년일자리 5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힌 이 후보는 “ ‘더 좋은 청년 일자리’ 를 많이 만들겠다”며 “교육훈련부터 구직, 이직까지 청년의 모든 취업 과정에 국가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과정에서 수강하게 되는 강의의 수강료를 포함하여 자격증 시험·토익시험 응시료, 면접 비용 등 취업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소확행 공약 시리즈 중 하나로 <청년 면접 준비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공약에서는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및 사진 촬영 지원, 전문가와의 모의면접 코칭 서비스 등 제공을 공약하였는데, 이번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는 이 소확행 공약을 포함·확대한 것으로 시험료 등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에서 취준생의 구직과정에서 청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원활한 진로 모색 및 직무 탐색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공약했다. 현재 실업급여가 계약기간 종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에 한해 지급되다 보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 평균이 약 13개월 정도(‘18년 조사)로 집계되는 등 청년들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은 대체로 길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충분한 직업적 탐색의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 ‘청년 일경험 보장제’ 실시를 약속했다. 청년에게 약 2년간 일경험을 쌓으며 기술과 직무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의 일

환으로 공공기관 인턴 등을 포함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11개월 수준이고, 거의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청년 일경험 사업의 근무기간을 현재의 약 두 배인 2년에 가깝게 연장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청년들의 역량축적 경험과 동시에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경험으로 취업역량을 높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네 번째로는 ‘청년일자리 사회책임제’의 도입을 공약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5%로 높이고, 신규 채용을 대폭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W·AI·메타버스 등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워라벨’이 가능한 비대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중심으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격 근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스마트워크·워케이션 등 비대면 업무 인프라의 확충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청년이 넘치는 기회 속에서 마음껏 도전하는 ‘청년기회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청년일자리 5대 공약 발표문

#대한민국대전환,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유능한대통령, #앞으로제대로, #나를위해이재명

청년 일자리,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 ‘청년기회국가’를 위한 청년일자리 5대 공약 -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교육훈련부터 구직, 이직까지 청년의 모든 취업 과정에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강료, 자격증 시험 및 토익 응시료, 면접비용 등 취업 준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직과정에서 청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적어도 생애 한 번은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경험 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이 약 2년간 일경험을 쌓으며 기술과 직무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정페이에 그치지 않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일경험으로 취업역량을 높여 민간과 공공의 괜찮은 일자리에 닿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일자리 사회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

을 5%로 높이고, 신규 채용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SW·AI·메타버스 등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워라밸이 가능한 비대면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격 근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재택·스마트워크·위케이션 등 비대면 업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청년이 넘치는 기회 속에서 마음껏 도전하는 ‘청년기회국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끝)

※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